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예측: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글: [J. Scott Maberry](#) 및 [Lisa Mays](#) (2017년 3월 15일 [수입 및 관세](#)에 게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수입품에 [10 ~ 45](#)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연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무역 전쟁이 시작될 것인가?

관세 증가가 미치는 영향

18 세기에 관세는 수익을 창출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방편으로 여겨졌다. 미국 최초의 관세는 1789년에 부과되었으며, 신생 국가의 경제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중상주의적 접근은 이후 주류 경제학자들에 의해 부정되었다. 미국 독립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에도 특화와 비교 우위가 국가의 번영으로 가는 진정한 길로 강조되었다(1776년에 출간된 국부론에서 아담 스미스가 주장).

그럼에도 높은 관세 부과는 현대 무역 정책에서 계속해서 일정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상무부는 롤러 베어링에서 냉동 가재에 이르기까지 미국에서 생산되는 특정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이러한 높은 관세로 인해 종종 외국 제조업체들은 미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고 이는 미국 내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 물론 이러한 접근에 대한 한 가지 비판은 생산자의 시장을 보호함으로써 소비자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승자를 가리는 일이 항상 모두에게 최고의 전략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특정 국가의 모든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협박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롭게 중국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할 것인가? 아마도 그럴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기존의 의견에 반대하고 대담한 정책 발단에 찬성하는 의사(예를 들면 이민에 관한 일련의 행정 명령들)를 공공연히 보여주었다. 관세는 나쁜 것이라는 아담 스미스의 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세를 없앨 이유는 절대 없다. 미 행정부는 현재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그 중 한 가지로 적성국교역법(1917)이 있는데, 이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수입 철강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 적용했던 법이다. 닉슨

대통령의 철강 추가 관세는 대통령 포고로 시행되고, 관세율 표 상의 요약 변경으로 법령화 되었으며, [연방법원 판결로 지지되었다.](#)

행정부가 모색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국제긴급경제권한법(1977)과 무역확대법(1962)이 있다.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무역법(1974)의 조항에 근거하여 2002 년 철강에 관세를 부과했다. 전세계 최전방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들은 대개 미국 법원에서 통과되어 왔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그가 제안한 관세는 [무역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은 1930 년에 부과된 높은 관세가 무역 전쟁의 원인이 되었고, 결국 대공황을 악화시켰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세계 제 2 차대전 발발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2017 년 트럼프 관세가 또 다른 무역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인가?

무역 전쟁과 대공황

스무트-홀리 관세법(1930)은 890 여개의 수입품에 높은 금액의 새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상대국은 보복관세를 부과했고, 이로 인해 전세계는 무역 전쟁으로 치닫게 되었다. 1930 년대에 미국의 수출은 급감했다. 최근의 한 분석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이 대공황의 주요 원인 여부에 상관없이 “그것은 분명 끔찍한 아이디어였다. 중앙 은행이 유동성을 만들어내고 주식을 부풀리는 1920 년대와 유사한 오늘날, 스무트-홀리의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야 한다” 라고 결론을 내렸다.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글로벌 유동성과 제조 역량이 높은 것은 사실이며, 주식 시장의 [거품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1930 년대에는 없었지만 현재에는 있는 한 가지 도구가 바로 세계무역기구(WTO)이다. 중국과 미국 모두 WTO 의 164 개 회원국 중 하나이다. WTO 의 한 가지 목표가 무역 전쟁을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1995 년 이 기구가 설립된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모든 WTO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에게 최혜국대우(MFN)라는 것을 제공하기로 합의한다. MFN 원칙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극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WTO 회원국에게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무역 상대국 간의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한다. WTO 의 원칙에 어긋나는 관세를 부과할 경우, 무역 상대국가는 보복 조치를 취하기 전에 매우 신중한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로

인해 WTO 협약은 쌍방 간에 관세를 높이는 과정의 속도를 늦추고, 무역 전쟁을 피할 수 있다. 결국 우세한 쪽이 WTO의 승인을 얻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지만, 그러기까지 수 년이 걸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오늘날 WTO의 존재가 대공황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무역 환경을 바꾸어 놓았다. 보복 주기가 훨씬 느리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광범위한 수입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다 하더라도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일어날 전망은 과거에 비해 훨씬 낮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의 무역 정책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WTO를 탈퇴하겠다고 [협박](#)했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WTO를 탈퇴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로서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해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재협상하려는 그의 노력이 좌절될 경우 우리는 그 판단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